

상업주의 그늘 짙게 드리운 문학상과 작가

문예지 전국시대 출판사를 둘러싼 지형도

90년대 초반 활동을 시작한 주요 문예지로는 《작가세계》(세계사)·《상상》(살림)·《문학동네》(문학동네) 등이 있다. 각각 89년, 93년, 94년 창간된 이들 계간지는 '평론이나 이론보다 작품 우위' 《작가세계》, '반성이 결여된 몰신적 대중문화와 전문주의를 가장한 자폐적 엘리트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그 간극을 메우는 비판적 가교' 《상상》, '문학이 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 《문학동네》 등의 창간동기를 가지고 90년대 초반 문학출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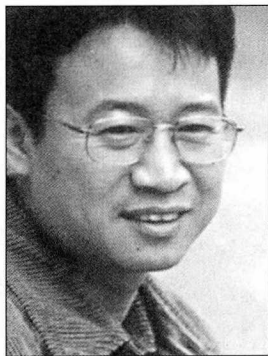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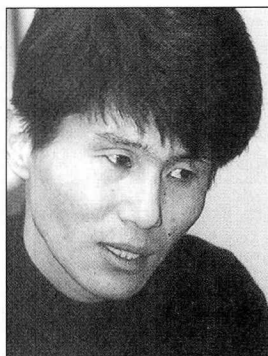
■ 다양한 내용 담은 문예지 전국시대

이들 계간지가 90년대 전반기 문학 지형도를 크게 바꿔놓았다면, 후반기는 기존 문예지가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동시에 많은 출판사가 문학 출판에 뛰어든 형국이다. 특히 《현대문학》 통권 500호, 《창작과비평》 창간 30주년, 《세계의문학》 창간 20주년이 되던 96년은 인적구성이나 지면의 쇄신을 통해 기존 문예지들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해다. 문학과지성사는 김동식·최성실·김태동·성기완 등을 중심으로 문화무크지 《이다》를, 창작과비평사는 영미문학을 조명하는 《안과밖》을, 민음사는 《세계의문학》의 편집위원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우찬제·이광호·권성우 등을 편집위원으로 한 문화비평지 《포에티카》를 각각 창간했고 《실천문학》 역시 이 해에 서강목·김재용·방민호·김남일 등을 새 편집위원으로 맞이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예지들의 출간도 잇달아 문예지 전국시대를 열었다. 96~97년 창간된 잡지로는 《한국문학평론》(한국문학평론가협회), 《작가》(민족문학작가회의), 《라벨》(문화공간), 《버섯》(토마토), 《21세기문학》(이수), 《새로운》(김영사) 등이다. 90년대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시기 문예지 창간 돌풍은 초반기 《작가세계》·《상상》·《문학동네》 등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며 문학출판이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90년대 창간된 문예지들은 각각 문학주의·문화비평·통신문학·신세대문학·페미니즘 문학 등의 문학적 관심사를

90년대 문학출판의 지형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백가쟁명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70~80년대 삼각구도로 문학출판을 이끌던 창작과비평사, 문학과지성사, 민음사의 영향력 사이를 비집고 신흥 문학출판사들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계간지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98년도 《문예연감》에 따르면 현재 문예지의 종수는 모두 161종인데, 90년 들어 창간한 잡지만 90종으로 전체의 반이 넘는다. 물론 부침이 심한 잡지의 속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90년대에 다양한 문학적 발언들이 나왔다는 반증이 된다.



90년대 각종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 왼쪽 왼쪽부터 김형경·윤대령·은희경·이순원씨.

중심으로 문예지가 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90년대 문학의 다양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학적 신념보다는 출판사나 문예지를 중심으로 작가군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주례사비평'이나 '섹트주의' 처럼 비평의 객관성을 크게 훼손하는 논란거리가 생겨났다.

문예지 중심의 작가군 형성이 낳은 또다른 현상은 출판사가 주체가 되는 문학상의 증가다. 《문예연감》에 따르면 1998년 현재 문학상의 숫자는 모두 218개로 십년전 107개에서 두 배 정도로 늘었다. 이 중 출판사가 제정한 문학상은 모두 53개인데, 90년대에 만들어진 문학상은 24개로, 출판사에서 시상하는 문학상의 반 가까운 숫자가 90년대에 제정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0년 초반 문학출판을 시작해 성공을 거둔 출판사들은 모두 자체적인 문학상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오늘의작가상'(민음사) 외에 92년 '작가세계문학상'을 필두로 93년 '살림문학상', 94년 '새로운작가상'(현대문학), 95년 '문학동네소설상' 등이 제정됐다. 이밖에도 출판사가 주체는 아니지만, 이들 상처럼 고액의 상금을 내건 문학상으로는 '삼성문학상'(93년) '국민일

보문학상'(94년)·'한겨레문학상'(96년) 등이 있다.

출판사의 이름을 내건 문학상의 경우, 문학출판에 새로 뛰어든 출판사에게는 새로운 작가를 공급받는 참고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학상 수상작이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문학평론가 고영직씨의 지적처럼 "출판사의 이벤트 마인드에 의해 수상작을 위한 수상작을 내거나 출판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최근에는 작가세계문학상, 문학동네소설상, 창비신인소설상이 모두 당선자를 뽑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며 몇몇 문학상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90년대 이런 전작장편 중심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등장한 작가로는 박일문·이인화·김형경·은희경·전경린 등이 있다.

또 1987년 이상문학상 수상자인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1백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린 뒤로 기존 문인의 중·단편을 대상으로 수상하고 후보작까지 수상소설집 안에 묶어내는 문학상 역시 90년대 들어 급속하게 늘었다. 1977년 제정된 이상문학상(문학사상사) 외에 1955년 《사상계》가 제정, 운영하기 시작하다가 87년부터 조선일보

사가 운영한 동인문학상, 역시 1955년 제정돼 그간 시상만 하다가 90년부터 수상소설집을 내는 현대문학상 등과 김유정문학상(동서문학사), 연암문학상, 21세기문학상 등이 바로 이 계열이다.

■ 급격히 상업화된 90년대 문학상

이런 수상소설집의 성공은 "전통과 권위, 심사의 공정성으로, 대상작과 마지막까지 겨룬 우수작을 엄선하여 한 권으로 집대성한 데 있다"(이상문학상 광고문구)는 자평처럼 한 해 동안의 문학적 성과를 한 권에 묶어 순수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욕구를 풀어주는 데서 비롯한다. 하지만 문학평론가 김이구씨의 지적처럼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수상작이 발휘할 상업성이 의심을 받아 한창 인기가 좋은 작가의 작품으로 발표 전에 조정되는가 하면, 이에 점찍어둔 작가로 결정하는 요식행위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의심도 받았다.

실제로 97년에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특정 문학상 수상 거부 움직임까지 있었고 같은 해 판매를 선점하고자 이상문학상과 현대문학상이 경쟁적으로 출간을 앞당기거나 98년 《한국 3대문학상 수상소설집》(가람기획)을 둘러싸고 출판사간 법적 공방까지 낳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학평론가 정과리씨는 "중·단편소설을 모아 수상소설집을 발간하는 문학상의 경우 급격하게 상업화됐으며 그외의 문학상도 공모상의 성격이 강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학상은 문학출판 빅3의 틈새를 파고들려는 후발 문학출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채택한 전략 중 하나였지만, 90년대 문학출판이 급성장하면서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문학계에 강한 상업주의를 몰고 온 요인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한편 신경숙은 한국일보문학상·오늘의 젊은 예술가상·현대문학상·만해문학상·동인문학상을, 윤대령은 이상문학상·오늘의 젊은 예술가상·현대문학상을, 이순원은 동인문학상·현대문학상을 수상해 그 횡수만으로 9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임을 증명했다. — 김연수 기자